※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 김소월, 「산유화」

9. <보기>를 고려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연의 질서는 반복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현됨으로써 항구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특히 시에서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 ① ‘산’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인간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
- ② ‘피다’와 ‘지다’의 반복을 통하여 자연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의 위치를 통해 꽃과 화자와의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갈 봄 여름’이 작품의 앞과 뒤에 반복되면서 계절의 순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10 ~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

일찍이 윤 직원 영감은 그의 소싯적 윤 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고요.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 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고요.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 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고 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 윤 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 애비, 부디 정신 채리라!…….”

윤 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 애비지요.

“…… 정신을 채리야 헐 것이 니가 암만히여두 네 아우 종학이만 못히여!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두 있고 착실히여서, 너치름 허랑허지두 았고 그럴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머년 대학교를 졸업허잖냐?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허구 나와서, 삼 년이나 다직 사 년만 찌들어 나머년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응? 목적…… 목적헌 경부가 되야 각구서, 경찰서장이 된담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러닝개루 너두 정신을 바짝 채리 각구서, 어서어서 군수가 되야야 았잖냐?……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디, 형 놈은 게우 군 서기를 댕기구 있담! 남부끄러서 어쩔 티여? 응?…… 아 글씨, 군수 되구 경찰서장 되구 허머년, 느덜 좋구 느덜 호강이지 머,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기 아등아등 잔소리를 허년 것두 다 느덜 위히여서 그러지, 나는 파리 족통만치두 상관웁어야! 알어듣냐?”

“네.”

“그놈 종학이는 참말루 쓰졌어! 그놈이 어려서버텀두

위너니 나를 자별하게 따르구, 재주두 있구 착실허구, 커서두 내 말을 잘 듣구……. 내가 그놈 하나넌 꼭 믿넌다, 꼭 믿어. 작년 올루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히피 쓰기는 허녕가 부더라마는, 그것두 허기사 네게다 대머는 안 쓰는 심이지. 사내자식이 너처럼 허랑허지만 말구서, 제 좃대만 실행 양이면 돈을 좀 써두 괜찮은 법이여……. 그리서 지난달에두 오백 원 꼭 쓸 디가 있다가 편지히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 주었다!”

- 채만식, 『태평천하』

10.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 직원 영감의 아버지는 화적 때에게 죽임을 당했다.
- ② 윤 직원 영감은 중학이 ‘경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③ 윤 직원 영감은 ‘군 서기’로 일하는 종수에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종수는 윤 직원 영감과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이이다.

1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 간 대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 ② 인물의 구어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자는 윤 직원 영감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발화의 양을 달리하여 인물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2.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합니다. 효율성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입니다.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 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 ① 글쓴이는 경쟁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다.
- ② 글쓴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제 조건은 협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서로를 인정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쟁의 가치로 보고 있다.
- ④ 글쓴이는 경쟁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공정한 경쟁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 흔히 정독과 다독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다.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된다. 일생을 함께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도 안 된다.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 버리듯 해야 할 때도 있다.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한다.

- ① 비슷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책의 종류를 예시하여 독서의 목적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④ 쉽고 생생한 비유로 책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14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면담자 아까 커피 타 놓고 기다리던 분들은 오랜 단골인가 봐요?

홍성일 아, 그 집은 한 30년 된 단골이여!

면담자 참 보기 좋았어요. ㉠ 그 집하고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홍성일 뭐 처음에는 물건 팔러 갔다가 알게 되었지. 그 집이 외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원래 사람을 반기는 집이기도 하고.

박영자 그 집 아줌마가 손이 커. 정이 많다고 하지!

면담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제 그분들이 아침 먹고, 두 분하고 함께 커피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던데…….

박영자 그 양반들은 늘 그래. 우리가 좀 늦는 날도 있는데, 그때까지 안 마시고 우리를 기다리더라고. 같이 마시려고. 그 마음이 참 고맙지.

면담자 단순히 생선을 사고파는 사람과 손님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자기의 동생이 생선파는 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

홍성일 그렇지. 손님 그 이상의 관계지, 우리는. 거기 마당이 넓잖아. 여름에 우리는 거기서 칼도 갈고 다 해! 그래서 칼, 도마도 그 집 창고에 다 놔두고.

면담자 이렇게 장사하다가 만난 인연이 참 다양하겠어요. 이 장사의 특성상 단골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홍성일 어떤 장사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이 장사는 특히 단골을 확보하는 게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손님들이 모두 뜨내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들을 모두 우리 단골로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하고.

면담자 ㉡ 단골을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홍성일 뭐 생선 장사가 따로 방법이 있간디? 그저 싱싱한 생선 제때 맞춰 와 바가지 안 씌우고 팔았지. 남들보다 더 일찍 움직이고. 사실 내가 새벽에 구리 시장 가는 것도 생물을 사려고 일찍 가는 거야.

면담자 정말 이 장사를 하려면 아주 부지런해야 할 것 같아요! 손님들과 이렇게 생선 팔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 그 안에서 정을 주고받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박영자 아이고, 말해 뭐 해? 기분 좋지! 손님들이 나와서 물건 많이 사 주고, 서로 대화하면서 웃고! 그러고 가면 기분이 당연히 좋지.

면담자 ㉔ 장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특별히 있어요?

홍성일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 보람이 있다고 느끼지. 꼭 오는 날인데 우리가 안 보이면 일부러 전화도 하고 그래. 그 사람들도 이제 보이다 안 보이면 걱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박영자 또 그런 사람들은 꼭 우리한테만 사 먹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 더 고맙지.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담자는 생선 상인이 손님과 겪었던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박영자는 면담 과정에서 단골손님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홍성일과 박영자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다.
- ④ 홍성일은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을 확보해 왔다.

15.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은 면담자가 관찰한 장면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② ㉒은 면담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다.
- ③ ㉓은 생선 상인이 느낀 정서를 구체화하기 위한 질문이다.
- ④ ㉔은 면담자가 생선 상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다.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추녀·기둥·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재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 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재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 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의 추이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③ 특정한 현상을 일으킨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반되는 세 가지 경험을 제시하고,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17. ㉠~㉤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자 손을 던지시 들어 가리키는데,
 “저기 저 건너 동산은 ㉠ 울울하고, 물고기 뛰노는
 푸르고 푸른 연못 가운데 신비한 화초가 무성하고, 나
 무마다 앓은 새는 화려함을 자랑하고, 바위 위 굽은 솔
 에 맑은 바람이 ㉡ 건똥 부니 늙은 용이 서려 있는 듯,
 있는 듯 없는 듯한 문 앞의 버들, 들쭉나무, 측백나무,
 전나무며 그 가운데 행자목은 음양(陰陽)을 좇아 마주
 서고, 오동나무, 대추나무, 깊은 산중 물푸레나무, 포
 도, 다래, 덩굴나무 ㉢ 넉출 ㉣ 휘휘친친 감겨 담장 밖
 에 우뚝 솟았는데, 소나무 정자가 대나무 숲 사이로 은
 은히 보이는 게 춘향의 집일러라.”

- ① ㉠: 나무가 뻗뻗하게 들어서 매우 무성하다.
- ② ㉡: 바람이 가볍게 슬쩍 부는 모양.
- ③ ㉢: 근본에서 갈라져 나온 것.
- ④ ㉣: 여러 번 단단히 둘러 감거나 감기는 모양.

※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내 버디 몇치나 흐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가) 동산(東山)의 □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 두어라 이 다숫밧긔 또 더흐야 머엇흐리

구름 비치 조타 흐나 검기를 즈로 흐다
 바람 소리 몹다 흐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칠 뉘 업기는 물썸인가 흐노라

고즌 므스 일로 꺾며셔 쉬이 디고
 풀은 어이흐야 프르논 듯 누르느니
 아마도 변티 아닐슨 바회썸인가 흐노라

더우면 곳 꺾고 치우면 님 디거늘
 솔아 너는 얻디 눈서리를 모르느다
 구천(九泉)에 불휘 고든 줄을 글로 흐야 아노라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꽃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뷘연느다
 더러코 사시(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흐노라

〔 차근 거시 노피 썸서 만물(萬物)을 다 비취니
 (나) 밤둥의 광명(光明)이 너만흐니 썸 잇느나
 〕 보고도 말 아니흐니 내 변인가 흐노라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18. 작품의 내용으로 볼 때 (가) 부분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앞으로 등장할 대상들을 소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표현 기법을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점층적인 시상 전개로 주제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문답법과 설의법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모호화하고 있다.

19. (나)를 통해 볼 때 (가)의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히 ② 피 ③ 들 ④ 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뚝이 예에.

생원 이놈, 너도 양반을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말뚝이 예에.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 말어 일조식(日朝食)하고,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활활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서양(西洋) 영미(英美), 법덕(法德), 동양 삼국 무른 메주 뻘뻘 하고, 동은 여울이요, 서는 구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드리 북향산 방방곡곡(坊坊曲曲) 면면촌촌(面面村村)이, 바위 툼툼이, 모래 켜켄이, 참나무 곁곁이 다 찾아다녀도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중략〉

생원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에,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뵈습디다.

생원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午向)에 터를 잡고, 난간 팔자(八字)로 오련각(五聯閣)과 입구(口) 자로 집을 짓되, 호박 주초(琥珀柱礎)에 산호(珊瑚) 기둥에 비취 연목(翡翠椽木)에 금파(金波) 도리를 걸고 입구 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天板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壯版房)이라. 화문석(花紋席) 찻다 펴고 부벽서(付壁書)를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담박녕정(澹泊寧靜)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가 완연히 붙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충신(孝悌忠信)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새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文房諸具) 불작시면 용장 봉장, 궤(櫃), 두지, 자개 함룽(函籠), 반단이, 셋별 같은 늦요강, 늦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칼 담배를 저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뵈습디다.

생원 이놈, 뭐야!

말뚝이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 뵈다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꿀물에다 축여 뵈다네. (긋거리장단에 맞

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들 (새처 안에 앉는다.)

- 「봉산탈춤」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새 원님’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당대 양반들의 사회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생원’의 말을 통하여 말뚝이가 해야 할 일이 제시되고 있다.
- ③ ‘춤과 음악’을 통하여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되고 있다.
- ④ ‘채찍’을 통하여 무대 안 가상의 장소가 설정되고 있다.